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7장 영적 판단과 분별

『산상설교』 하권 제47장, 인쇄 229~241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6

> ❓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람도 진리도 아무것도 가려내면 안 되는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7장 6절이 앞의 "비판하지 말라"(7:1~5)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본다. 6절은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균형을 잡아 주는 말씀이다. 주님은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금하셨지만, 사람과 진리를 가려내는 분별까지 버리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그는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풀고, 주님과 사도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신 실례를 보여 준다. 이어 복음을 전할 때 지킬 네 원칙을 끌어낸다. 그 다음 이 구절에 담긴 두 가지 함의, 곧 죄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와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해석해 줄 사람 없이 성경만 뿌리는 일이 옳은지 질문을 던지고 끝맺는다.

📜 절별 정리

📜 1. 비판하지 말라 다음에 왜 이 말씀이 오는가 — 성경의 균형

로이드 존스는 먼저 6절의 자리를 바로잡는다. 흠정역(영어 King James 성경)은 6절을 따로 한 문단으로 떼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6절은 7장 1절에서 시작된 문맥의 마지막 진술이다(번역문의 '6장 1절'은 문맥상 7장 1절로 읽는다). 겉보기에는 "비판하지 말라" 바로 뒤에 "개와 돼지를 가려라"가 나와

권징이 사라지고, 이단을 드러내 판단하는 일도 없어지며, 기독교 생활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읽으면 결국 큰 교리들을 다 만나게 되고, 성경의 놀라운 균형도 보게 된다. 반대로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 내면 극단에 빠진다. 그는 '기독교적'이라는 말만 붙으면 무엇이든 찬성하는 사람들을 예로 든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친절과 자비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큰 오류에 빠져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혹평하지는 말되 분별은 잃지 말라는 것이고,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오류는 찾아내야 한다. 다만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도우려고 찾아낸다.

1. 6절은 7:1~5의 결론이자 균형추다
2. 정죄하는 비판과 분별은 전혀 다르다
3. 분별이 없으면 권징과 이단 판단이 사라진다
4. 구절을 문맥에서 떼면 극단에 빠진다
5. 오류는 찾되 돕기 위해서 찾는다

> **마태복음 7:6**
> 이 설교의 본문. 분별하라는 명령
>
>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 **마태복음 7:1**
> 정죄하는 비판을 금하는 앞 문맥
>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마태복음 7:5**
> 형제의 티를 빼 주는 일, 곧 돕기 위한 분별
>
>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태복음 7:15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판단 없이는 불가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 2. 진주와 개·돼지는 누구인가 — 주님과 사도들의 실례

거룩한 것과 진주는 진리, 곧 천국의 메시지를 가리킨다.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전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마을의 썩은 고기를 먹는, 사납고 위험한 반(半)야생 짐승이었고, 그 이름 자체가 치욕이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 불결함과 울타리 밖의 모든 것을 상징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일까?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한다.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회심할 수 없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 교회가 증언하게 하셨다. 이 구절의 뜻은 주님이 사람의 유형을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데 있다. 주님은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각각 다르게 대하셨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창녀들, 그리고 죄 중에 붙잡힌 여인을 대하신 태도도 달랐다. 가장 좋은 실례는 누가복음 23장이다. 주님은 빌라도에게는 대답하셨지만, 병적인 호기심으로 표적을 구하던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진리를 바꾸지 않으셨고, 전하는 방법을 바꾸셨다. 사도들도 그대로 행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고린도에서 진리를 짓밟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특정 시기나 미래의 나라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산상설교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이다.

2. 개는 사나운 짐승, 돼지는 불결함의 상징
3.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4. 주님은 진리는 그대로, 방법은 달리하셨다
5.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이다

누가복음 23:3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하신 주님

>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9

호기심뿐인 헤롯에게는 침묵하신 주님

>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한복음 4:7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방식의 실례

>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도행전 13:46

진리를 버린 자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선 바울

>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8:6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옷을 떤 바울. 짓밟는 반응의 실례

>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주님은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고 특정 제시방법을 변화시키셨습니다.”

📜 3. 증언의 원칙 ① ② — 사람을 분별하고, 맞게 적용하라

첫째 원칙은 사람에게 여러 유형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기계적인 증언만큼 비극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다. 상대가 누구인지, 형편이 어떤지 살피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남는 것은 “나는 할 일을 했다”는 자기 의(自己義)의 감정뿐이다. 그는 세일즈맨이 판매 심리학을 배우는 예를 든다. 물건을 팔 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영혼 구원에 진심이라면 더욱 분별과 이해가 필요하다. “내 기질이 이러니 나는 이렇게 일한다”고 버텨서는 안 된다.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 둘째 원칙은 유형을 구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각 유형에 맞게 적용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빌라도와 헤롯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말의 노예가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사람 낚는 어부'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미끼를 골라야 한다고 꼼꼼히 말하면서, 정작 이 본문에서는 같은 원칙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막 회심한 사람이 훌륭한 증인이 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바울이 새로 입교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빛에서 이해된다. 초신자는 아직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다.

1.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계적 증언은 비성경적이다
2. 기계적 증언에는 자기 의의 감정만 남는다
3. “내 기질이 이래서”는 핑계가 안 된다
4. 사람마다 맞는 '미끼'를 알아야 한다
5. 초신자를 바로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말라

> **고린도전서 9:20**
>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상대에 맞춘 증언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 9:22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바울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태복음 4:19

사람 낚는 어부. 사람에 맞는 접근의 비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디모데전서 3:6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 근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 4. 증언의 원칙 ③ ④ —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셋째 원칙은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슬린다. 그래서 진리를 불쾌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로이드 존스는 모든 불신자에게 다짜고짜 “구원받았소?”라고 묻는 것을 예로 든다. 이런 질문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의 반응, 곧 짓밟고 찢고 모독하는 반응을 끌어낸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모독할 구실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진리를 늘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한다. 걸림이 있다면 십자가 자체의 걸림이어야지, 전하는 사람의 불쾌한 태도가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원칙은 상황마다 진리의 어느 면이 적절한지 아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는 믿음으로만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죄와 구원의 필요로 돌아가게 하셨다. 선택과 예정 같은 교리나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을 불신자와 토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신자에게도 적용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어린아이라서 고기 대신 젖을 먹였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말했다.

1. 진리는 그대로, 방식은 불쾌하지 않게
2. 걸림돌은 십자가여야지 내 태도여선 안 된다
3. 불신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만
4. 대화 주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한다
5. 신자에게도 젖과 고기를 가려 준다

> **갈라디아서 5:11**
> 십자가의 거치는 것. 허용되는 유일한 걸림
>
>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 **요한복음 4:20**
> 예배 장소 논쟁으로 화제를 돌리려 한 여인
>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요한복음 4:16**
> 주님이 여인의 삶과 죄로 이야기를 돌리심
>
>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고린도전서 3:2**
> 젖과 밥. 신자에게도 단계가 있다
>
>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 **고린도전서 2:6**
>
>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말하는 지혜
>
>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 5. 첫째 함의 — 죄는 사람을 진리 앞에서 개와 돼지로 만든다

이 원칙들에서 로이드 존스는 더 큰 결론을 끌어낸다.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죄가 사람에게 끼친 끔찍한 영향을 무섭게 그린 곳은 없다. 타락 이후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개와 돼지로 만들었다. 죄는 진리에 대한 적대감을 낳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다. 오늘도 신약 시대와 똑같은 반응을 볼 수 있다. 진리를 말하면 으르렁거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 그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곧바로 믿지 않으면 참을성을 잃는다. 그들이 죄와 사탄의 지배, 마귀의 속임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알아야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셨는지도 그때 깨닫게 된다. 그들에게는 새 성품, 곧 중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미래의 일부 유대인을 위한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나야만 진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

1. 이 구절은 죄의 영향을 가장 무섭게 그린다
2. 죄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낳는다
3. 믿지 않는 이에게 조급해하지 말라
4. 그들의 진상을 알 때 긍휼이 생긴다
5.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중생뿐이다

>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디도서 3:3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던 옛 모습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에베소서 2:1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살리심이 먼저 필요하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성경의 보관자요 해석자입니다."

📜 6. 둘째 함의 — 진리는 풍성하다, 나는 자라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는 진리의 성격을 짧게 다룬다. 진리는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다. 성경에는 초신자에게 맞는 진리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큰 교리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것은 진리에 단계가 있다는 증거다. 에베소서 1장 앞부분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중에서도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비밀들이 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소명과 선택의 교리를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라는 사람에게 그 교리는 점점 더 소중해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는 청중에게 묻는다. 서신서의 힘찬 진리 설명이 나에게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왜 내가 자라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그는 변증학(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평생을 보내면서도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지

1. 진리에는 초보와 깊은 단계가 있다
2.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비밀이 있다
3. 서신서가 지루하다면 나를 점검하라
4. 변증에만 머물면 영적 유아로 남는다
5.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 **히브리서 6:1**
>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명령
>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 **히브리서 5:11**
> 듣는 것이 둔해 깊은 교리로 못 나아감
>
>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 **에베소서 1:9**
> 자녀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
>
>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 **마태복음 11:15**
>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진리
>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7. 열린 질문 — 해석해 줄 사람 없는 성경 배포는 옳은가

것이 옳은가? 플래카드에 성경 구절, 특히 보혈에 관한 구절을 써 붙이는 것이 언제나 옳은가? 그는 이런 일이 모독으로 이어진 경우를 자주 보고 들었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8장의 내시는 성경을 직접 읽고 있었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해석이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을 일반 원칙에서 빼 버릴 수는 없다. “성경 배포의 놀라운 결과를 보라”는 반론도 그는 다룬다. 사람의 매개 없이 회심한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은 인격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대화 중에 상대가 성경을 원하면 기꺼이 주는 것은 옳다. 문제는 해석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무분별하게 두는 것이다. 그는 영적 생활의 흔적이 보이기 전까지는 성경을 주지 않는 실험을 잠시 해 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내비친다. 그렇게 하면 교회 밖 사람들도, 교회도 성경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새로 느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성경의 보관자요 해석자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1. 답이 아닌 '질문'으로 던진 문제다
2. 해석자 없는 배포가 모독을 부를 수 있다
3. 예외적 회심은 감사하되 정상 방법은 아니다
4. 하나님의 정상 방법은 해석하는 사람이다
5. 교회는 성경의 보관자요 해석자다

> **사도행전 8:30**
>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는 빌립
>
>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 **사도행전 8:31**
>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해석자가 필요함
>
>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분별
사람과 가르침의 참과 거짓, 상태를 가려 보는 영적 판단력이다. 정죄하는 비판과는 다르다.

권징
교회가 죄나 이단에 빠진 교인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공적 치리다.

이단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왜곡하는 가르침이다.

자기 의(自己義)
하나님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칭의)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교리다.

중생
성령이 죄로 죽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새 성품을 주시는 일이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
복음 자체가 사람의 자존심에 주는 걸림이다.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주는 불쾌함과는 구별된다.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하는 학문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7장 6절은 “비판하지 말라”의 균형추다. 정죄는 금하지만 분별은 명령한다.
- 주님은 진리는 바꾸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전하는 방법을 달리하셨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래야 한다.
- 진리를 짓밟는 반응은 죄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보여 준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
- 진리는 풍성하다. 그리스도인은 젖에서 고기로 자라 가야 한다.
- 하나님은 성경을 맡기신 사람을 통해 진리를 해석하고 전하신다. 교회는 성경의 보관자요 해석자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